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6.11.4,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 -

◇ **매일 국내·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선별·요약하여 배포함**

□ 국내

○ 수소도 이제 '돈 되는 사업' 찾는다…WHE 2026 4일 개막 ('26.11.2, 경향신문)

- 'WHE 2026'이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며 12개국 197개사가 참가해 수소산업의 사업화 및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함
- 국제 컨퍼런스에서 청정수소 정책·산업 동향과 국가별 지원정책을 공유하고, 독일·캐나다·중국 등 국가별 수소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함
- H2 비즈니스 파트너십 페어'를 통해 글로벌 바이어 21개사와 국내 수소기업 간 1:1 상담을 진행하는 등 기술·정책 논의를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계함

○ 주한호주상공회의소, '제1회 한-호주 산업 인사이트 세미나' 개최 ('26.11.3, 가스신문)

- 주한호주상공회의소는 11월 2일 서울에서 첫 한-호주 산업 인사이트 세미나를 열고 한국 기업의 호주 청정기술·수소사업 진출에 필요한 인허가, 투자, 금융조달 조건을 논의함
- 발표자들은 호주 주별 인허가 체계가 다른 점과 수소 프로젝트의 사업성·장기 구매계약 확보가 금융조달에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으며, 호주 수소 프로젝트 76개 중 17개가 운영 중이고 11개가 건설 중이라고 소개함
- 이번 행사는 사업 추진 절차를 공유한 업계 교류 자리이며 새로운 사업협약이나 수주가 체결된 것으로 발표되지는 않음

○ 울진군,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알린다…"WHE 2026 참가" ('26.11.3, 가스신문)

- 울진군은 WHE 2026에서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홍보관을 운영하고 원전 기반 안정적 전력 공급과 입주기업 혜택 등을 홍보함
- 약 144만m^2 규모·총사업비 4,000억 원의 국가산단 조성 현황과 향후 계획, 입주 희망기업 업무협약 현황 등 투자 정보를 제공함
- 1:1 기업 상담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수소 생산기업의 투자 유치 및 산단 입주 확대를 추진함

○ 동서발전, 글로벌 수전해 기술협력 본격화… 동해, 그린수소 산업화 거점 도약 추진 ('26.11.2, 에너지데일리)

- 한국동서발전은 한전 전력연구원·미국 전력연구원과 11월 2~3일 동해에서 수전해 기술워크숍을 열고 대용량 설비 설계와 발전소 연계, 생산비용, 내구성 등 상용화 과제를 논의함
- 동해발전본부는 3.2MW 규모 태양광 연계 수전해 연구와 2.5MW급 알칼라인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, 행사 참석자들은 3일 현장 실증시설을 방문할 예정임
- 동서발전은 국제 연구기관의 기술 경험을 국내 실증과 연결해 동해 그린수소 연구개발 집적단지를 산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임

□ 해외

○ [독일] 티센크루프, 보조금 조건 완화 후 그린수소 공급 재입찰 준비 ('26.11.2, Hydrogen Insight)

- 독일 정부는 티센크루프스틸의 뒤스부르크 직접환원철 공장에 제공하는 보조금 20억 유로(약 3조 5,000억 원)의 조건을 고쳐, 그린수소 사용 확대가 늦어져도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
- 기존 조건은 보조금 중 5억5,000만 유로(약 9,500억 원)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소 혼합 비율을 높여 2037년 100%에 도달하는 일정과 연계했으나, 새 조건은 시장 여건에 따라 점진적이고 유연한 확대를 허용함
- 티센크루프는 수소 생산능력과 배관·수입 경로가 예상보다 부족하고 가격도 높다고 설명했으며, 2025년 3월 높은 입찰가격 때문에 중단한 그린수소 장기 조달을 다시 추진할 계획임
- 앞선 입찰은 2028년 그린·블루수소 10만4,000톤과 2029~2035년 연간 14만3,000톤 등의 구매를 목표로 했지만 계약 체결에는 이르지 못함
- 회사는 직접환원철 공장이 화석가스로만 가동돼도 기존 석탄 고로보다 탄소배출을 약 50% 줄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장기적으로 그린수소 사용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함

○ [호주] UAC, 중국 생산 수소 운송용기 5기 호주 프로젝트에 첫 공급 ('26.11.2, Fuel Cells Works)

- 노르웨이 UMOE 어드밴스드 컴포지트(UAC)는 중국 자싱 공장에서 복합재 수소 운송용기 묶음 5기의 제조를 마치고 호주 하이링가 선다운 합작사업에 선적 중이라고 밝힘
- 20피트 용기 2기와 40피트 용기 3기는 뉴사우스웨일스의 그린수소·저탄소 암모니아 사업에 투입되며, 40피트 용기 한 기는 수소를 최대 720kg 저장할 수 있음
- 자싱 공장은 중국에서 제작된 타입 IV 유리섬유 고압용기를 적용했으며 연간 복합재 용기 최대 2만 기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회사가 설명함
- 하이링가에너지는 앞서 뉴질랜드 수소충전소 4곳에 UAC의 노르웨이 생산 용기를 사용했고, 이번 호주 사업은 연간 저탄소 암모니아 최대 4,500톤 생산을 목표로 함
- 이번 발표는 호주 사업용 용기의 제조 완료와 선적 단계로, 사업 전체의 가동이나 암모니아 생산 개시를 뜻하지는 않음



<사진: UAC의 수소 운송용기 관련 원문 사진 / 출처: UMOE Advanced Composites>